

4 효종은 왜 북벌을 추진했을까요?



소현 세자가 잠들어 있는 소경원

↓오랑캐

다른 민족을 낮잡아 이르는 말

? 호기심 뽀뽀



북학론은 청을 배우자는 주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선을 침략했던 청을 대체 왜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조선이 오랑캐라고 여긴 청은 중국을 지배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갖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어요. 현실적으로 조선의 군대로 청을 공격해 정벌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지요. 그러면서 청을 정벌할 것이 아니라 청의 발달한 문물을 배워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는 북학론이 등장한 거예요. 박지원, 박제가 등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북학론자들이었어요.

소현 세자, 오랑캐라도 배울 것은 배우자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인조는 청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후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은 청에 인질로 가게 되었지요. 청에 간 소현 세자는 발달된 청의 문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랑캐에게서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해. 새로운 책과 물건을 조선에 가져가야겠다.’

청에서의 오랜 생활을 마치고 소현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소현 세자는 아버지 인조에게 청에서 가져온 책과 물건을 소개했어요.

그러나 인조는 소현 세자가 못마땅했어요.

“내가 청나라 놈들에게 어떤 굴욕을 당했는데, 내 아들이 완전히 청나라 놈이 다되었구나.”

인조와 소현 세자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현 세자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소현 세자가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피를 토하며 죽은 것이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실록의 기록이 남아 있어 아직도 소현 세자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청에 복수를 다짐하는 봉림 대군

소현 세자가 갑자기 죽자 봉림 대군이 세자가 되었어요. 그 후 소현 세자의 부인은 사형을 당하고, 세 아들은 귀양길에 올랐지요. 이 때문에 소현 세자의 죽음에 인조가 연관이 있어 있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어요.

봉림 대군은 누구일까요? 봉

림 대군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예요. 인조가 청에 항복한 이후 형과 함께 인질로 끌려갔죠. 청으로 가는 길에 3살 난 딸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청에서 봉림 대군은 형과는 달리 청의 관리와 교류하지 않았고, 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어요. 조선으로 돌아온 봉림 대군은 갑자기 죽은 형을 대신해 세자가 되고, 곧 왕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조선의 제17대 왕 효종이에요.



북벌을 주장하는 효종

‘병자호란 때 아바마마께서 당한 굴욕을 갚겠어.’

왕이 된 효종은 굳은 결심을 했어요. 이에 효종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청을 공격하고자 했지요. 이를 북벌 정책이라고 해요.

“오랑캐의 나라 청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대포 쏘는 군대 10만 명을 길러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라. 청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 조선이 쳐들어갈 것이다.”

효종의 명에 따라 조선은 성곽을 수리하고, 군대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실제로 청을 정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청이 이미 명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손에 넣었는데, 과연 우리가 청을 이길 수 있을까?”

“맞아. 몇 년째 전쟁 준비를 하느라 우리 같은 백성들만 힘들 뿐이지.”

이처럼 북벌 정책에 대한 불만도 점차 커졌어요. 게다가 효종이 갑자기 죽자 북벌 정책은 중단되었어요.



◀방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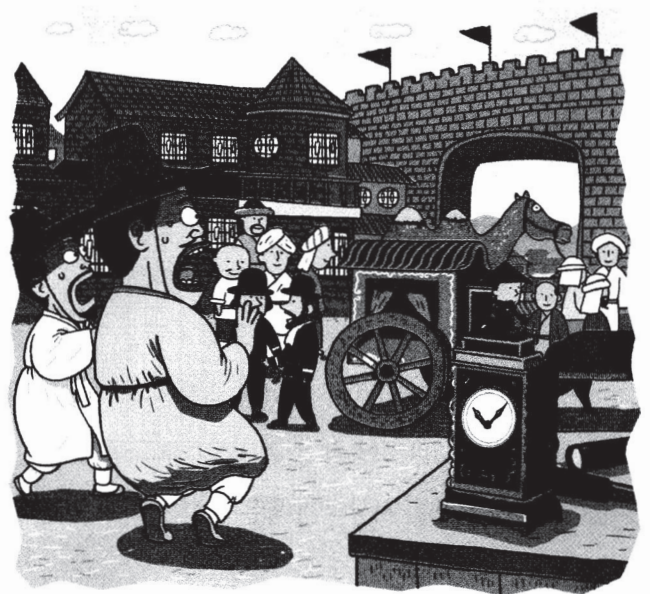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림

청을 배우자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이 갑자기 죽은 후 시간은 흘러갔어요. 청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사람들의 생각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청은 더 강해지고, 문물이 발달한 나라가 되었어요. 서양, 서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청에 다녀갔고, 새로운 문물이 전해졌지요. 청의 수도 베이징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물건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청에 다녀온 조선 사람들은 청의 발달된 문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에 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나타났지요. 이 논의를 ‘북학론’이라고 해요.



4 정조는 왜 수원 화성을 세웠을까요?

탕평비를 세운 영조

↓ 군자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 세손

왕의 손자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

↓ 서얼

양반 첩의 아들로 과거 시험의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차별을 받았음

영조는 정조의 할아버지예요. 영조가 왕위에 올랐을 무렵 관리들은 세력을 나누어 대립하고 있었어요. ‘신하들 간의 싸움을 멈춰야 해. 싸움이 심해지면 국왕의 권위도 약해지고, 피해는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이 문제를 고민하던 영조는 신하들을 모아 놓고 탕평책을 제안했어요. ‘탕평’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에 따라 영조는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뽑아서 나라의 관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영조는 탕평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웠어요. 탕평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두루 시귀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한쪽으로 치우쳐 두루 시귀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마음이다.’

이는 곧 나라의 관리가 될 성균관 학생들에게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영조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요?



성균관에 세운 탕평비

? 호기심 뽐뽐

정조는 왜 수원 화성을 건설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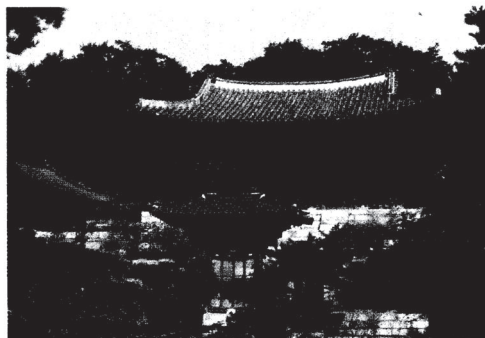


정조는 사도 세자의 아들이에요. 반대파의 위협 때문에 왕위에 오른 뒤에도 늘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그런 그가 아버지인 사도 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에 화성을 건설했어요. 자신의 개혁 정치를 위한 근거지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이곳에 성을 쌓아 상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한마디로 방어 기능을 갖춘 도시인 동시에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키우려고 했답니다.

정조와 규장각

영조가 탕평책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신하들은 여전히 세력을 나누어 대립하고 있었어요. 정조를 싫어하는 세력은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손인 정조를 암살하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정조가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잠자리에 칼을 두기도 하고, 밤을 새워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할아버지의 탕평책을 이어나갔어요. 세력을 가리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 썼고, 더 나아가 정조는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해 줄 인재를 기르고자 했어요. 그래서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통해 젊은 인재를 길러 냈죠. 규장각에서는 학문도 연구하고, 나라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만들었어요. 이때 유득공, 박제가와 같이 그동안 차별받던 서얼들도 규장각 관리로 뽑았어요.



규장각

정조의 꿈이 담긴 신도시, 수원 화성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에 자신의 정치적 꿈을 담은 화성을 세웠어요. 정조의 신임을 받던 정약용이 화성을 설계하였고, 화성 건설에는 동양과 서양의 과학 기술이 이용되었어요. 화성의 성벽은 적을 막기 위해 단단히 세워졌고, 정조가 머물기 위한 행궁도 세웠어요. 그리고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이주시켰지요.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기능을 갖춘 신도시 화성이 드디어 탄생한 거예요.

정조는 여러 차례 화성으로 행차했어요. 정조가 한강을 건널 때는 배를 연결한 배다리가 만들어져 장관을 이루기도 했지요.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배다리를 이용해 한강을 건너는 정조의 화성 행차 모습



화성의 구조